

지난날을 돌아보며

李明春
상건축연구소

건축에 종사한지도 어언 4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필자가 한창 건축계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서양의 건축문화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로 여러가지 시행 착오가 많았고 모든 근대건축의 실험장이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는 산업화의 기간이 되는 활동을 담는 건물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으며 자연 건축구조기술 분야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전통계승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전통건축의 공간 구성이나 의장 계획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대대로 축적되어 오고 자생적으로 발달되어 오는 건축 구조에 대한 전통이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서구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문화와 함께 건축술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 필자는 아직 서양문화가 지배적이 아니었던 시기에서 체험한 사실들을 건축실무와 관련시켜 소개하고 싶다.

1. 집터(垞地)선정에 관하여

1560년 전 계룡산에 세워진 갑사(甲寺)는 공주에서 동남쪽으로 20km지점의 연천봉, 서북방에 위치하며 해발 800m 산록에 자리잡은 국립공원으로 신라 눌지왕 4년(420년) 아도화상(阿道禾尙)이 창건하였고, 진성여왕 때에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중수했다.

갑사(甲寺)의 사찰경내의 각 건물의 배치와 좌향(坐向)을 보면, 수집체의 건물들이 한결같이 아침햇살에 전 건물에 비치고 저녁 낙양빛이 사찰전역에 비추도록 배려되어 있다.

우리 조상은 옛부터 자연외경 사상이 깊었으므로 이 갑사(甲寺)터를 정하는데 주지가 3년간 양풍을 하여 풍수를 등에 업고 계룡산을 수백차 오르내리며 정성을 쏟아 오늘의 사찰을 건립하였다 한다.

전설에 의하면, 새벽 동이틀 무렵 아침햇살이 터에 비추는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하루는 새벽에 풍수가 갑자기 주지의 등에 업혀 쉬지말고 단숨에 목적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갓은 고난을 겪은 후, 수목이 울창하고 산수가 좋은 절터를 3년만에 발견하여,

이렇게 잡은 터를 닦아 3년간 풍수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기초돌을 놓아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불도저로 산을 헐어내고 대단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옛날의 자연경관을 살린 자취를 더듬을 수가 없어졌다. 어느 저명한 건축가 K씨는 재불유학시 주택설계를 하는 데 5년이 소요 되었다는데, 갑사(甲寺)의 절터를 정하는데 3년을 소요한 우리 조상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음미해보고 싶다. 특히, 요즘과 같이 거대하고 중요한 건물이 빠르게 건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을 창작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과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요건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주택을 설계하는데 평당 8만원 내지 10만원이 소요되며, 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에서라도 정성을 들여 구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건축주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건축가들이 건축가의 품위를 잃지 않는 좋은 이미지를 줄 것과 아울러 적극적으로 건축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심어줄 필요성을 느낀다.

2. 장식벽(裝飾壁)설치에 관하여

지하철 건축설계(차량기지창, 지하역사내장, 지상역사 등)의 용역을 약 10년간 맡으면서, 지하역사 내부에 장식벽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사자(死者)의 생존시의 영광과 신분을 나타내고 사후(死後)의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벽화의 의미는 현대 대중문화 속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생활의 장(場)이 되는 지하철 역사에도 자연스러운 어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뜻밖에 이 안은 곧 지하철 본부회의에서 크게 인기를 모아 전면적으로 지하역사내장에 장식벽이 도입 되었으며 1984년 5월 22일 새로이 2호 순환선이 개통되어 그 성과를 보았다.

이 장식벽이 승객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부여 할 것이라는 기대에

서 창작의 긍지를 한없이 느끼며, 근래에 건축되는 고층건물 외벽에 과감히 장식벽이 장려된다는 얘기가 있어 반갑게 느껴진다.

3. 개구돌(蓋溝突)

(HYPOCAUSTUM)에 관하여

개구돌이 인류주거 난방에 사용된 것은 기원 전으로 추정되며 이와 유사한 양식의 바닥난방 SYSTEM(HYPOCAUSTUM)이 고대 로마에도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답사한 양산 통도사의 개구돌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방 한칸에 100명-150명의 숙식이 가능하며, 한번 땀 때마다 마차 한대 분량의 화목량이 소요되며, 한번 땀 다음은 아궁이와 굴뚝을 막아 식는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 연료량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불때는 방식이며 약 500년 전에 시공하여 한번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개구돌은 함남 안변의 석왕사 응진전(1386년 창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찰방의 수용인원은 150명-200명이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바닥은 진흙(粘土)을 약 한자(30cm) 정도 다져서 약간 건조시킨 후 구들골을 쳐서 고래를 만든다. 그후 핏돌을 놓고 구들장을 덮고, 다시 구들장과 구들장짚 사이에 진흙을 거미줄 형상으로 느려 바른 다음 다시 약 5cm-7cm 두께로 진흙을 개어 바르며, 이 때에 산에서 생솔방울(솔송)을 따다 진흙속에 꽂아 약 일주일간 불을 때서 건조시키면, 솔방울 술에서 송진이 나와 응고된다. 다 건조되면 자귀로 깎아내고 대패질을 한 후 썩새(사포대용)로 문지르고 생콩으로 윤을 내어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는 장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화목을 땀 때 많은 재

가 구들골을 메우는데 보통의 경우는 4, 5년에 한번 정도로 수리를 하여 다시 개구돌을 놓는 것이 상례이나 이 석왕사의 경우는 부엌 아궁이의 머리 쪽 부분과 굴뚝 개자리 쪽에 고래마다 직통으로 통하는 구멍을 설치한다. 이것이 바로 소재구멍이며 재를 긁어내고, 물을 부어 깨끗이 씻어내려 재를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도 영구 개구돌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 이와 흡사한 난방 방식이 미국에서 FLOOR-HEATING 방식이라 하여 개발되었는데 일종의 온수난방으로 석유의 부산물로 된 호수로 직경 6mm의 물구멍을 만들어 약 5cm 간격으로 3-5가닥으로 된 합성수지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고유의 온돌 방식이 이의 모체가 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꼭 첨언하고 싶은 말은 일제시대 때에 사용하던 온돌, 연돌 등의 잘못된 용어를 개구돌 또는 굴뚝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싶다. 溫突·煙突 등.

여기서 잠깐 주택에서 쓰였던 고콜대의 구조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콜대는 부엌방 입구의 개구돌 판위에 등대(燈台)와 연결되어 설치되며, 부엌 아궁이에서 화목을 땀 다음 그 불을 등대(화로의 일종)에 퍼 넣고 여기서 음식물을 데우며 하부는 고콜대로 연결된 구멍으로 불을 끌어 넣어 이 위에 세발 솥을 걸어 놓고 부녀자들의 부업인 누에고치를 삶아 명주실을 만들곤 했으며 특히 필자의 모친이 약 60년 전에 부친을 도와 부업을 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조절하기 위해 퍼낸 불씨를 등대에 끌어 모아 재를 덮어두면 사그러지지 않고 2, 3일은 지속이 되며 농촌에서 겨울에 흔히 감자를 구워먹곤 하였다. 또한 고콜대 상부에는 반침을 달아 이 위에 등유

(등, 식물기름을 그릇에 붓고 심지를 꽂음) 혹은 송진이 많이 붙은 소나무 개비에 불을 밝혀 부엌 전체의 조명기구와 화로(火炬)구실을 했다. 즉, 이 고콜대는 요즈음의 FIRE-PLACE 나 페치카와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갖고 있었다. 특히 이 구조가 현재의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에 도입된다면 무척 바람직할 것이다.

약 25년 전 필자는 제주도 송당목장의 (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별장 실시 설계와 시공을 했을 때 이 개구돌 구조를 응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 건물은 건평 70평의 단층 석조마감(제주도 화산암) 건물로 거실의 약 20평(50명 숙식)에 해당하는 면적의 바닥을 개구돌로 고안하여 그 위의 마감은 천연스레이트(돌장판) 그라인딩 마감을 하였고 화이어 플레이스 위에는 부산 동래에서 가져온 화강석에 황소 머리를 조각하여 설치하고 그위에 총가는 제주도의 산호로 만들어 총을 걸게 했다. 이 시절 개구돌을 놓는 기능공은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37년간 구들만 전공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다가 시공하여 준공 때 여러 귀빈들의 격찬을 받았다.

아마 이와 같은 돌장판으로 된 개구돌은 필자가 개발한 것이 처음인가 한다. 위에서 필자가 건축활동을 하면서 느낀바를 두서 없이 적어보았다.

과학 기술이 인간이 거의 감지하기 어려운 속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기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구조기술과 재료가 속속히 출현하여 인간 환경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을 위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고양시키고 발전시키는 건축가의 사명은 변함이 없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한다.

한번두번 어긴약속 두고두고 불신산다